

뮤지컬 '19 그리고 80' 출연하는 연극배우 박정자 씨

“65세에 꽃미남 사랑 큰행은 80세까지 무대 서는게 소망”

“무대에 선 이래 요즘처럼 내가 바보 같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박치’에 ‘몸치’였나... 호호호.” 공연을 보름 앞둔 뮤지컬 '19 그리고 80'에 출연하는 연극배우 박정자(65) 씨의 목소리는 2일 인터뷰하는 동안 내내 밝았다.

● 연극으로만 3번 무대 올려
이 작품은 본래 연극으로 알려진 작품. 이번에 처음으로 뮤지컬로 바꾸어 선보인다. 죽음을 앞둔 80세 할머니 '모드'와 19세 청년 '해럴드'가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내용이다. 해럴드 역은 연극 '멜로드라마'에서 얼굴을 알린 이신성 씨가 맡았다. "주위에서 꽃미남하고 호감을 맞춘

다고 부럽다고 난리예요. 역대 해럴드 역이 다 멋있었거든요. 여배우라고 다 이런 행운이 있는 건 아니고 '할머니' 박정자만 가능한 거죠."

'19 그리고 80'은 박 씨가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박 씨는 이 작품을 연극으로만 이미 3번 올렸다. "주인공인 모드는 나의 이상형이죠. 여든 살이 되자 죽음을 선택한 모드는 세상을 욕심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무공해 영혼이예요. 2003년 처음 이 작품을 했을 때 '나도 모드처럼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늙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지요."

박 씨는 모드의 나이인 80세가 될 때까지 이 작품을 계속 올리는 게 목표다. 박 씨는 "19 그리고 80'은 내가 혼자서 '박정자의 아름다운 프로젝트'라는 별칭을 붙여 놓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올해 뮤지컬로 처음 선보인 후 내년에는 연극으로, 내년에는 뮤지컬로, 한 해씩 번갈아가며 80세까지 공연하는 게 그의 아름다운 프로젝트다.

"배우 박정자가 해마다 성장하고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맛을 계속 보여 주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

● "무대만 보면 왜 그리 힘이 솟는지..."
지난해 '신의 아그네스'를 공연 당



뮤지컬 버전으로 처음 선보이는 '19 그리고 80'에서 19세 청년(이신성)과 사랑을 나누는 80세 할머니 '모드' 역으로 출연하는 연극배우 박정자 씨(오른쪽). 사진 제공 신시뮤지컬컴퍼니

시 빈판길에 미끄러져 큰 부상을 당하고 무대에 섰던 그는 "지금은 건강은 문제없다"며 "무대만 보면 힘이 난다"고 했다.

평소 가수 뻘치는 노래 실력으로 유명한 그는 지난해 '쇼 왓(Sho What)'이라는 콘서트를 연 것을 비롯해 자주 무대에서 노래 솜씨를 보여 왔음에도 "뮤지컬에 대한 부담은 크다"고 말했다.

"그냥 애창곡들을 모아서 부르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뮤지컬 '넌센스'를 하긴 했지만 그때는 웃고 움직

이는 정도였고... 포기엔 쉬워도 뮤지컬이 정말 어려운 장르라는 것을 매일 연습하며 실감하고 있어요." 연극 버전과 이번 뮤지컬 버전의 차이에 대해서는 "연극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밝고 경쾌해졌다"며 "연출을 맡은 장두이 씨가 '80세 할머니와 19세 소년의 사랑'이니까 컬트 뮤지컬에 대한 부담은 크디"라 덧붙였다. 3월 5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02-580-1300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책갈피 속의 오늘

1938년 加 노먼 베순 중국행

"나는 살인과 부패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그 모순을 목격할 수 없다. 나는 우리가 태만한 탓에 탐욕스러운 자들이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이들을 살육하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소."

1938년 1월 2일, 고국 캐나다를 떠나 중일전쟁의 전장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노먼 베순은 전 부인인 프랜시스에게 특별한 편지를 썼다. 편지는 유서처럼 비장했다. 이미 스페인 내전 때 중군의 사로 활동했던 그에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리 없었다. 하지만 전장에서 쓰

템적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

노먼 베순은 공산주의자였고, 일제 침략에 대항한 중국군의 편에 섰지만 그의 신념은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었다. 그는 일본군 포로 역시 중국군과 똑같이 돌봤다. 또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손잡고 일본군과 싸웠던 장제스의 국민당 군인관들이 자기 부대 병사들만 치료하는 것에 분노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대규모의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했다. "왜 무수한 일본인이 이곳까지 와



의사 영웅

러져 가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베순의 의지를 꺾진 못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중국 북부, 일본군의 남진을 막기 위해 마오쩌둥이 이끄는 8로군 부대가 세운 군사기지였다. 베순은 그곳에서 하루 스무 시간 가까이 일하며 중국군 부상자들을 돌봤다. 수혈에 무지했던 중국인들을 설득해 최초의 민간합동 헌혈부대를 조직하고 20여 곳에 기지 병원을 세워 수술실을 만든 것도 그였다.

베순의 의료 활동은 뒷일을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의료원들을 위한 의학 교재를 집필하고 병원 부속학교까지 세웠다. 그는 의료란 단순히 의사 개인의 기술이 아닌, 경제 행정 사회적 기반을 통해 시

서 무수한 중국인을 시체로 만드는가? 그게 그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던 말인가? 이 선행한 일본인들에게 살인 임무를 맡기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의 행적은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중국인들은 이 파란 눈의 서양인을 '바이추언(白求恩)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베순의 중국식 발음을 딴 이름이자 '우리를 구해 준 백인 은인'이란 뜻이다.

1939년 11월, 그는 맨손으로 수술하다 벤 상처가 덧나 패혈증으로 사망해 중국의 순교자 묘지에 묻혔다. 마오쩌둥이 "한 인간의 서거 이상을 통곡한다"고 애도했듯 그는 지역과 이념을 초월한 흠뻑니즘의 상징이 됐다.

신광명 기자 neo@donga.com

0시 서울 남·여아 출생... 0시 10분 인천공항 입국...

쥐띠해 연 2008년 1호 주인공들

2008년 첫날에는 각종 '새해 1호'가 잇달아 탄생했다.

1일 0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천중문의대 강남차병원과 서울중구 목동동 관동대 제일병원에서 각각 새해 첫 아기가 태어났다.

강남차병원에서는 남윤정(30·여) 씨와 박준호(31) 씨 사이에 몸무게 3.4kg의 여자아이가 태어났고 제일병원에서는 최경은(29·여) 씨와 광정인(30) 씨의 2.8kg의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첫 국제선 승객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대한항공 KE854편을 타고 1일 0시 10분경 입국한 조수진(25·여) 씨였다. 베이징의 칭화(淸華)대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조 씨는 공항에서 대한항공 관계자들에게서 국제선 프레스 티지클래스 왕복항공권 등 축하 선물과 꽃다발을 받았다.

첫 출국 항공편은 오전 8시 인천공항을 이륙해 일본 후쿠오카(福岡)로 가는 대한항공 KE787편과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 중국 마카오행 마카오항



조수진 씨(오른쪽)가 새해 첫 손님에게 주는 왕복항공권과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 인형을 선물 받고 있다.

사진 제공 대한항공

공의 NX825편이었다.

새해 첫 열차는 오전 4시 동대구를 출발해 서울로 향한 무궁화호 1302호와 같은 시각 광주를 출발해 서울 용산역으로 떠난 무궁화호 1422호였다.

새해 처음으로 해가 떠오른 곳은 한국 영토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독도였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6분경 독도에서 해가 동해 위로 떠올랐고 육지에서 7시 31분경 울산 울주군 간절곶에서 일출을 볼 수 있었다.

연합뉴스



"추위야 가라" 겨울 바다서 새해 맞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린 이색적인 해맞이 행사. 철인3종 클럽 회원들이 1일 차가운 겨울 바다에 뛰어들어 추위도 잊은 채 즐기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포드 前대통령 저격범 30여 년만에 가석방

제럴드 포드 전 미국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복역해 온 새라 제인 무어(77·여) 씨가 30여 년 만에 가석방됐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인터넷 판이 1일 보도했다.

무어 씨는 1975년 9월 샌프란시스코 시내 중심가에서 세인트 프랜시스 호텔을 나서던 포드 전 대통령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 조사 결과 연방수사국(FBI) 요원 출신인 무어 씨는 포드 행정부가 파피를 탄압한다고 믿고 암

살을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 자녀를 둔 이혼녀였던 그는 정신과 치료를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어 감형이 예상됐으나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해 왔다. 당시 포드 대통령은 탄환이 빗나가 목숨을 건졌으며 2006년 12월 93세 때 사망했다.

미 연방교정국은 가석방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무어 씨는 과거 인터뷰에서 "포드 전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내가 풀려나는 일은 없



새라 제인 무어 씨가 1975년 1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재판 받기 위해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남원상 기자 surreal@donga.com

인사

◇국세청 (전보) ▽과장급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안육자 △조사3국 1과장 공형학 △국세조사국 △이은향 △종로세무서장 진우범 △중부 △김상철 △남대문 △한명로 △서대문 △장영주 △마포 △조성근 △구로 △최이봉 △동작 △김홍규 △강남 △이향구 △역삼 △김영환 △반포 △송천수 △도봉 △김민식 △송파 △이영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2과장 하영표 △조사2국 3과장 신종식 △조사3국 3과장 이학찬 △남인천세무서장 주남기 △동수원 △강성원 △평택 △백운철 △이천 △강성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과장 최영목 △동충주세무서장 최석철 △천안 △홍순필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최영락 △세원관 미국장 공기수 △조사1국장 정호경 △광주세무서장 배준호 △서광주 △박순서 △대구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김성준 △남대구세무서장 조병기 △북대구 △임용석 △중부 △심상희 △부산진 △차수창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김재웅 △교육제도개선 T/F팀장 최남익 △국세청 권오철 (신임) ▽세무서장 △원주 정경석 △속초 이영우 △영동 자동차 △제천 최재웅 △공주 신준영 △예산 김진현 △여수 박석현 △순천 신규진 △정읍 허명재 △해남 박득용 △동대구 손승락 △상주 장성석 △영주 송기봉 △영덕 최상호 △김해 김태호 △동울산 안광원

◇국민연금공단 (승진) ▽1급 △삼북강북지사장 문규연 △관악동작 △이남철 △이천 △기세걸 △부천 △김신철 △익산 △최현 △서대구 △김명권 △남울산 △김상룡 △김해 △김선규 △진주 △한명덕 (전보) ▽1급 △교과지원실장 김용기 △기초노령연금지원센터장 박해용 △서대문노년복지사업장 정훈아 △의정부 △합천구 △구리남양주 △박성길 △강남역삼 △남은진 △산양 △박덕수 △안산 △유덕철 △남동연수 △김남익 △남인천 △이재현 △부평 △이희광 △동대진 △송희식 △조지현 △공주 △천안 △황송수 △북광주 △노주순 △북부산 △신종원 △평택 △백운철 △이천 △강성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과장 최영목 △동충주세무서장 최석철 △천안 △홍순필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최영락 △세원관 미국장 공기수 △조사1국장 정호경 △광주세무서장 배준호 △서광주 △박순서 △대구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김성준 △남대구세무서장 조병기 △북대구 △임용석 △중부 △심상희 △부산진 △차수창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김재웅 △교육제도개선 T/F팀장 최남익 △국세청 권오철 (신임) ▽세무서장 △원주 정경석 △속초 이영우 △영동 자동차 △제천 최재웅 △공주 신준영 △예산 김진현 △여수 박석현 △순천 신규진 △정읍 허명재 △해남 박득용 △동대구 손승락 △상주 장성석 △영주 송기봉 △영덕 최상호 △김해 김태호 △동울산 안광원

◇국민연금공단 (승진) ▽1급 △삼북강북지사장 문규연 △관악동작 △이남철 △이천 △기세걸 △부천 △김신철 △익산 △최현 △서대구 △김명권 △남울산 △김상룡 △김해 △김선규 △진주 △한명덕 (전보) ▽1급 △교과지원실장 김용기 △기초노령연금지원센터장 박해용 △서대문노년복지사업장 정훈아 △의정부 △합천구 △구리남양주 △박성길 △강남역삼 △남은진 △산양 △박덕수 △안산 △유덕철 △남동연수 △김남익 △남인천 △이재현 △부평 △이희광 △동대진 △송희식 △조지현 △공주 △천안 △황송수 △북광주 △노주순 △북부산 △신종원 △평택 △백운철 △이천 △강성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과장 최영목 △동충주세무서장 최석철 △천안 △홍순필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최영락 △세원관 미국장 공기수 △조사1국장 정호경 △광주세무서장 배준호 △서광주 △박순서 △대구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김성준 △남대구세무서장 조병기 △북대구 △임용석 △중부 △심상희 △부산진 △차수창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김재웅 △교육제도개선 T/F팀장 최남익 △국세청 권오철 (신임) ▽세무서장 △원주 정경석 △속초 이영우 △영동 자동차 △제천 최재웅 △공주 신준영 △예산 김진현 △여수 박석현 △순천 신규진 △정읍 허명재 △해남 박득용 △동대구 손승락 △상주 장성석 △영주 송기봉 △영덕 최상호 △김해 김태호 △동울산 안광원

손바닥 크기 '560g 미숙아' 심장-장 동시수술 성공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손바닥 크기의 최저 체중 미숙아에 대한 국내 최초의 심장 및 장(腸) 동시 수술이 성공리에 이뤄졌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은 체중 500g의 여아에게 심장 및 장 수술을 동시에 실시해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아기는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해 3.4kg의 건강한 상태로 지난해 12월 29일 퇴원했다. 지금까지는 2005년 영동세브란스병원이 630g의 미숙아 장 수술에 성공한 바 있다.

이 여아는 지난해 6월 18일 임신 26주 만에 몸무게 574g으로 태어났다. 평균보다 4개월 일찍 태어나면 서 신체 여러 곳에 문제가 생겼다. 출생 6일째 미숙아에게서 발생하는 장 천공이 생겨 태변이 배 속에 쌓였

으며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는 분리가 되어야 하는 폐동맥과 대동맥이 서로 연결되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발견됐다. 급한 대로 배에 구멍을 뚫어 복강에 차오르는 복수를 빼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 때문에 체중도 태어날 때 보다 14g이나 적은 500g이 됐다.

이 병원의 한석주 소아외과, 박한기 소아심장외과, 남광란 소아과, 박용원 산부인과 신생아 치료팀은 생후 16일째인 7월 4일 5시간에 걸쳐 소장 일부를 잘라내는 장 수술을 비롯해 폐동맥과 대동맥을 떼어 주는 심장 수술을 동시에 시행했다.

한 교수는 "이번 수술로 체중 1000g 이하의 미숙아에 대해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와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ikeday@donga.com

부고

◇조성일 전 서울시감사관실·종로구청 직원 부인상·재호 미래산업 개발 사원 친회 조은제프 사원 모친상=1일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3일 오전 9시 02-3410-6916
◇김보순 캐스캐이드 대표 철산 태화철산 관리이사 중순(대)상 대표 부친상·이희호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 류영수(서)재만 대림통상 대표 장영익 열린학원장 김광수 기아자동차 품질사업부장 장인상=1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16-9227-5639
◇이태일 전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장 부친상=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서울보훈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02-483-3320
◇이은세 세윌리테크 사장 은우 피엔퍼리서치 회장 모친상=1일 충북 충주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8시 043-842-4444
◇김종대 금호종합금융 대표 부친상·이호연 청양건설 전무 남궁식 HS홀딩스 감사 김형진 주성대 교수 장인상·정경이 허유재병원 마취과장 사부상=31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02-2650-2743
◇신대영 법무법인춘추 대표번호사 태경 육군대령 태철 세이 대표 영희 씨 영인 흥진중 연구부장 모친상·송석달(사) 씨 엄홍중 안양여상 학생부장 장모상=3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9시 02-2650-2753

작가 김수현씨 "유방암 수술받고 왔어요"

'사랑과 야망'의 TV 드라마 작가 김수현(65·사) 씨가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고 홈페이지(kshdrama.com)를 통해 밝혔다. 김 작가는 지난해 12월 31일 홈페이지 게시판에 '친구 따라 강남 갔다'라는 글을 올려 '12월 11일 친구의 성화에 유방암 검사를 했는데 조직검사 결과 초기인 것 같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21일 수술을 받고 27일 퇴원했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방사선 요법도 항암 치료도 필요 없는 초기의 초기"라며 "수술한 날 잠깐 말고는 통증도 없었고 별 이상이 없다"고 경과를 적었다. 수술 때 형제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그는 "곧 기사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입으로 소식을 들었다"며 "21일 수술을 받고 27일 퇴원했다"고 밝혔다.

손태권 기자 Sohn@donga.com

인명구조 대상 3명 선정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지난해 재난 및 사고 현장을 누비며 구급, 구조, 화재진압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

을 벌인 김만선(44·도봉소방서) 김상성(39·성동소방서) 홍덕기(36·강남소방서) 소방교 등 3명에게 '제1회 인명구조 대상'을 시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현재 기자 uni@donga.com

東亞日報	
110-715 서울시 중로구 세종로 139	
발행·편집인 김수현	인쇄인 김대우
논설주간 김수현	편집국장 김대우
전화번호 02-2020-0114	02-2020-0114
e메일 주소 newsroom@donga.com	
기사 의견·재보 전화 02-2020-0200	팩스 02-2020-1139
독자투고 전화 02-2020-1290	팩스 02-2020-1299
	아간팩스 02-2020-1249
1964년 1월 1일 등록번호 가-2호	
© 동아일보사 2008 1920년 4월 1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구독신청·배달안내	전국공공 1588-2020
서울 02-2020-0600	전국공공 1588-2020
080-023-0555	울산 080-066-0555
부산 080-469-0555	전주 080-333-0555
대구 080-256-0555	청원 055-262-0667
대전 080-254-0555	청주 043-256-6668
광주 080-611-0555	제주 064-751-0048
구독료 월 12,000원	1부 500원
광고문의 전화 02-2020-0500	팩스 02-2020-1419
	무료전화 080-233-8585
세계권위저사 뉴욕타임스(미국) 더리얼타임(영국)	
朝日新聞(일본) 이즈베스타(러시아)	
사문(중국) 시디노보(러시아)	